

친구야, 이 책 한 번 읽어볼래?

본 자료는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17개 시·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도서 추천 이벤트에 응모한 초중고 학생들의 추천 메시지를 실은 것으로 교육부가 제공하는 권장·필독 도서 목록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INDEX

- 01. 가장 많이 추천한 책 Best 7
- 02. 책과 함께 하는 수업
- 03. 봄여름가을겨울에 읽어보세요!
- 04. 가족, 친구, 우리들의 이야기
- 05. 책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 06.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다
- 07. 조금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
- 08. 기억해야 할 아픈 기억들

01 가장 많이 추천한 책 Best 7

친구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기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슴 훈훈한 이야기!

“인간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어떤 것이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돼”

이 책은 감동적이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가 생활 30년을 기념한 책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추리 소설과 판타지 소설, 일본 작가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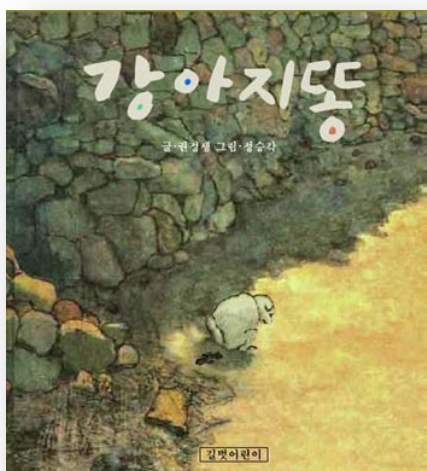
- 연*훈

일단, 이 책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기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슴이 훈훈한 이야기이다. 이 책을 읽게 되면 단 하룻밤의 기적이 선사하는 감동판타지를 느낄 수 있다.

- 김*민

이 책은 장편 추리소설이지만 마치 새로운 미지의 세상에서 장시간 동안 모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쓰야, 쇼타, 고헤이인데 나미야 잡화점에 들른 도둑으로 인해 이곳에 오게 된 후 셋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 최*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울 수 이야기!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네 몸똥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이 책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것 같은 강아지 똥이 민들레 꽃을 피우는 거름이 된다는 감성적인 동화이다. 소외되고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누구에게든 힘이 되고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참 민들레 꽃이 많이 핀 공원을 보니 문득 떠오른다. 따뜻한 봄볕 뒤로 더 추워하는 이가 있을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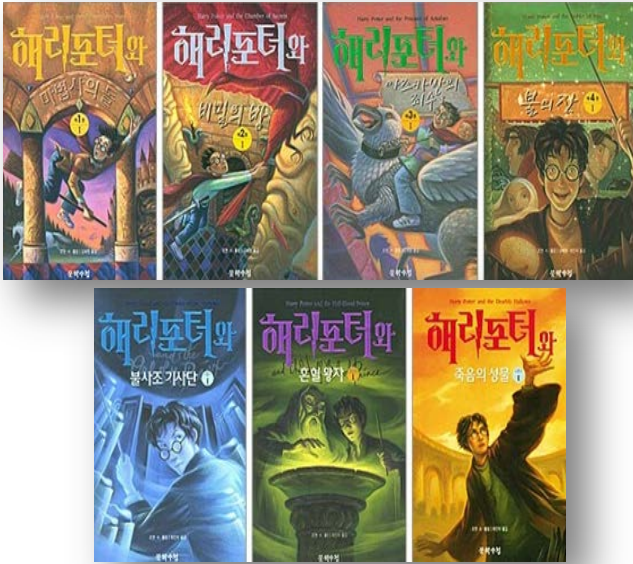
- 이*연

강아지똥은 자신을 희생해서 예쁜 민들레 꽃을 피웠듯이 친구들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짧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인것 같아 추천합니다.

- 조*진

| 해리포터 시리즈

J.K. Rolling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금세기 최고의 마법소설!

슬리데린은 아냐.
"슬리데린은 아니라고?"
"확실해? 넌 위대해 질 수 있어.
여기 네 머리 속에 다 있다고.
슬리데린은 네가 위대해지는 데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야.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아니라고?
그럼,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리핀도르가 나올 거야!"

해리포터라는 책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판타지 소설이다. 해리라는 주인공의 성장소설로 고아였던 해리는 어느 날 마법사 이야기를 듣고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와서 나쁜 적과 싸워 마법세계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아주 재미있고 교훈도 많은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형

먼저 내용들이 모두 섬세하다.대부분의 책들은 '뭐 뭐를 했다'라고 적을때 '해리는 아주 지독하게도 뭐 뭐를 했다.'이렇게 섬세하게 적으니 정말 읽기가 더 좋고 장면이 그림 없이도 잘 이해가 되었다. 두 번째, 캐릭터들이 많아서 흥미진진했다. 문제가 많으니 해결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없고 김빠지는 부분이 없었다.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책이 너무 좋고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 류*서

| 책 먹는 여우

프란치스카 비어만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사고력 그리고 책을 익는 좋은
습관을 길러줄 이야기!

*여우 아저씨는 책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급기야는 책을 먹게 되는데...*

책 먹는 여우는 책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여우 이야기입니다. 여우는 책을 좋아해서 책을 도서관에서 훔치고, 집에서 책을 먹다가 경찰에게 잡혀갔습니다. 책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여우 아저씨처럼 경찰서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우 아저씨는 감옥에서 글도 쓰고, 복사한 것을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우 아저씨처럼 책을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책을 소중히 다루는 것은 잊지 마세요.

임*아

책을 너무 좋아해서 소금을 뿌려먹는 표지그림이 너무 신선했으며, 나도 책을 많이 읽은 후에 나중에 직접 책을 써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간에 조금 두껍긴 하지만 중간 중간 그림도 있어서 중학생 이상이라면 충분히 읽어볼 만 할 것 같다.

- 김*연



가족의 의미, 행복한 가정의
필요 조건, 엄마의 고마움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그림책!

*피곳 부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벽난로 선반 위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곳씨는 그 봉투를 열어 보았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돼지야"*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돼지책.
돼지책에서처럼 우리집도 집안일은 모두 엄마가 다하셨다. 가끔
힘들다고 하시면 그때만 아주 잠깐 도와 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다.
혹시 우리엄마도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엄마가 집을 안 나가시게 아빠랑 동생한테 엄마를 많이
도와드리자고 말씀 드렸더니 아빠도 알았다고 하셨다. 돼지책은
우리가족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해준 책 이어서 친구들에게도 추천
해주고 싶다.

- 이*원

가족구성원의 소중함, 필요성, 가족이 하는 일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재미있게 돼지로 표현하고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만
말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동물과 사람의 각자의
시선에서 보면 재미있다. 우리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책이라서 친구들과 선생님께 추천하고 싶다.

- 김*수



꼬마 신동 마틸다의 마법 같은 이야기!

"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군요!"
"그래, 자유의 몸이 됐지.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었는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
구나."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시나마 휴식을 구하고 싶으면 이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이 스트레스를 뱅~날려버리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마틸다가 초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조절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복수하는 스토리로, 지금 청소년기인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시험을 상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과 비슷해 공감이 잘되어서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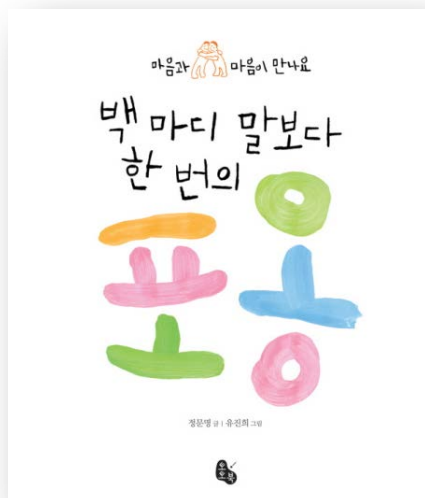
- 성*재

이 책은 무책임한 엄마, 아빠와 무서운 교장 선생님이 주인공인 신동 마틸다를 못살게 굴어서 마틸다가 복수를 하는 이야기이다. 이 책을 읽으면 지금 공부를 하느라고 머리를 많이 쓰는 아이들이 머리를 식힐 수 있을 것 같다. 내 또래에 아이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은 소설 책인 것 같다.

- 초*현

|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포옹

정문영



포옹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포옹의 힘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사랑, 소통, 화해, 용서, 격려, 위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백 마디 말보
다 한 번의 포옹이 아닐까요?

이 책은 포옹의 힘과 포옹의 소중함을 이야기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은 서로 배려하며 사랑 가득한 아이가 될 것이고 부모님들이 읽으면 내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소통이 쉬워질 것이며, 사회전체가 이 책을 읽으면 포옹의 힘으로 폭력과 범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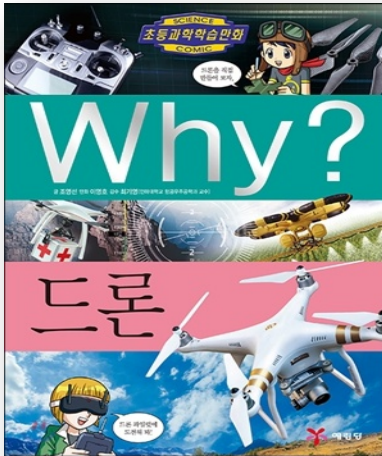
백 마디의 말보다 한번의 포옹을 한다는 것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따뜻한 감동이 전해져 와요.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을 때 건강하지 않았지만 떨어져있던 자매가 함께 인큐베이터 안에서 지내면서 엄마뱃속에서처럼 의지하며 사랑하며 스킨십을 하면서 다시 건강해지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말보다 어느 약보다 포옹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것임을 알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세상의 어느 힘 보다 그리고 그 어떤 선물보다도 사랑이 주는 가치는 무척이나 설레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많은 말보다 서로에게 힘을 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포옹이라는 것을 많은 친구들이 함께 알았으면 해서 추천합니다.

- 심*민

02 책과 함께 하는 수업

과학, 수학,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낸 책





*하늘을 가르는 첨단 과학의 집합체, 드론!
드론의 가능성에 우리의 상상력을 더해보자.*

재미있으며, 신기한 드론을 이 책을 통하여 소개하고 싶다. 책 속에는 드론의 작동방법과 활용방법, 드론의 종류,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다. 단순히 드론을 작동하여 비행하는 작은 물건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드론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도움이 되는 걸 알게 되었다. 만화책처럼 그림과 같이 있어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글만 있는 책보다 덜 지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친구에게도 추천하는 바이다.

-조*선

| 하리하라, 미드에서 과학을 보다

이은희



보통 과학책이 조금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반면 하리하라의 책들은 우리가 읽기에 적합하다. 책 속은 엄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미드, CSI시리즈, 성범죄 수사대, 하우스, 본즈, 텍스터, 고스트 위스퍼리, NCIS 등 온통 과학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를 넣어 둔 작은 미드과학수첩이다. 난 미드과학수사대의 모든 천재적인 멤버들 중 한사람이 되고 싶을 만큼 그들의 사건을 들여다보는 명철함에 반할 만큼 존경스럽다. 특히, 죽은 사람들의 뼈로 사건을 해결하는 본즈의 두뇌는 정말 최고다. 정말 책 표지에 나와 있는 말처럼 지루한 과학에서 신나게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드와 과학이 합쳐진 멋진 책. 친구들도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 이*희

| 눈이 즐거운 물리

김상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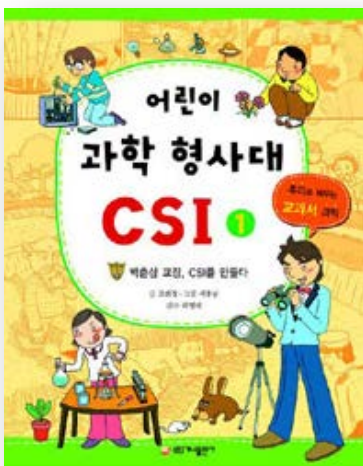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이 책을 읽으면 좋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리는 과학실험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실험도 있지만 집에서 할 수 없는 실험도 있다. 그런데 이 책은 간단하게 해 볼 수 있는 실험을 보여주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실험을 많이 따라해 보진 못했지만 레이저 실험, 컴퓨터로 3D 만들기 등등은 해 보았다. 정말 재미있었다. 이 책은 무언가 어렵지만 자세히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처음 이 책을 보게 되었을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지러웠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실험을 해 보니까 아주 쉬웠다. 실험을 좋아하고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완전 추천한다. 꼭 읽어보세요~!!

-이*희

| 어린이 과학 형사대 CSI

고희정



이 책은 어린이들이 어린이 경찰 학교에 들어와 과학적인 단서로 그 사건들을 해결하고 다니는 내용의 시리즈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아이들과 어린이 형사학교 1차 교장 박춘삼과 여형사, 2차 교장 공차심 교장이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 연습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수업 시간에 배울 것을 책 속의 이야기로 읽으니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모르던 부분도 이 시리즈를 통해서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어린이 과학 형사대 CSI를 읽어 보시기를 부탁하며 이 추천하는 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 이*호

| 갈릴레오 아저씨네 비밀 천문대

조영선



내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1. 과학의 달에 맞게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천문학의 전설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책이기 때문이다. 3. 여러가지의 단락으로 동화처럼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 동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 말미에 독후 활동지가 있어 글을 다시금 떠올리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 추천합니다.

-임*아

| 항아리 속 이야기

안노 마사이치로



4학년에 들어와서 수학 첫 단원에 큰 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보다 수도 커지고, 만부터 십만, 백만, 천만, 억, 조까지 나온다. 이렇게 큰 수에 대해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 책을 읽으며 큰 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특히 점으로 수를 표현해 큰 수까지 나타낸 점이 좋았다.

- 방*혁

| 수학특성화중학교

이윤원, 김주희



수학특성화중학교는 스토리텔링식으로 쓰여진 수학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 보다 즐겁게 수학을 이해할 수 있다. 1학년은 예습을, 2학년은 복습과 예습을, 3학년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복습도 할 수 있으니 고등학교 배치고사를 대비하는 겸 읽는 것을 매우 추천한다. 재미있는 스토리로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스토리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폭 빠져 읽다가 그만 자라고 엄마한테 야단을 들을 만큼 흥미진진했다. 제목만 보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오산이다. 정말 스토리가 흥미진진하니 꼭 봤으면 좋겠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책 앞과 중간중간에 일러스트가 나오는 것인데, 일러스트를 생각하면서 내용을 전개하면 정말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친구들은 모두 이 책을 읽고 꼭 수.포.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해

|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 이야기

김정희



점점 심화되는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면서 수포자가 되어가는 친구들에게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이야기라는 책은 수학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학은 단지 숫자만 다루는 따분한 과목이 아니라 수많은 수학자의 헌신과 희생과 함께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발전해오고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 남*은

| Who 근초고왕

최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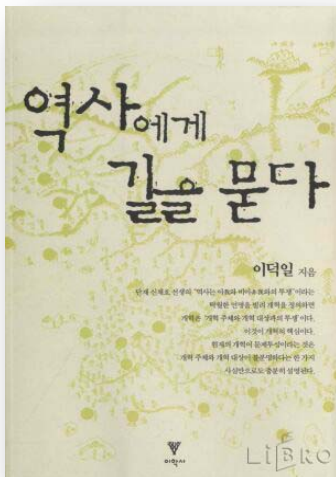


내가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은 근초고왕이야. 백제는 고구려에게 공격을 당해 힘이 없었지. 그런데 비류왕이 돌아가신 후 여구왕자가 근초고왕이 되었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자 근초고왕은 고구려와 전쟁을하기로 하고 신하들도 그 말을 따랐어.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되었고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이기자 백제는 전성기가 되었지. 고구려왕을 죽이긴 했지만 근초고왕은 중국문화를 받아 들여 과학도 발전시키고 원시 왜나라에게 칠지도를 선물하고 그 후에 칠지도는 일본에 보물이 되었어. 375년에 근초고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었을까? 이 책을 읽으면 알게 될꺼야 꼭 읽어봐! 백제가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지 말이야.

-권*환

| 역사에게 길을 묻다

이덕일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실감나는 책이다. 과거 역사적 사건을 현대 사회의 사건과 연관 지어 공통점을 분석하고 있는 이덕일 교수는 우리에게 역사란 언제나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피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이 책을 통해 배웠고 느꼈다. 조선 시대 뇌물 죄 처벌은 오늘날 비리공직자들이 두려워하는 특정 범죄가중 처벌법보다 열 배는 엄했다고 한다. 조선을 개국한 공신 정도전을 통해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과전법 개혁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임금은 물론 국왕의 친인척이나 권력자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조선의 대간과 오늘날의 검찰을 비교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사법부 관리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 지 배우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오늘의 우리 역사를 진단할 수 있고 미래의 내다보게 해 준다.

- 유*현

|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금현진
손정혜



이 책의 시작은 역사 반에서 시작한다. 우리 또한 비슷한 점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역사를 교실에서 배운다는 점이다. 선생님이 하나 하나 꼼꼼히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독자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구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하나 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 같다. 마치 책이 아닌 살아있는 한국사 선생님 같았다. 친절하게 한국사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 책을 추천한다.

-최*원

| 조선왕조실록

무적핑크
이한



이 책은 역사를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부터의 이야기인데, 거의 다 아는 카카오톡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평소에 몰랐던 잡다한 왕의 하루, 업적, 취미 등 다양한 지식을 카툰이 배경인 만화로 알 수 있어서 만화는 좋지 않다는 인식을 깰 수 있었다. 또 중간중간에 역사에 관한 글이 실려있어서 더욱 좋았다. 아마 이 책을 읽고 나면 조선왕조에 관한 지식 대부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공부지만 재미있는 책이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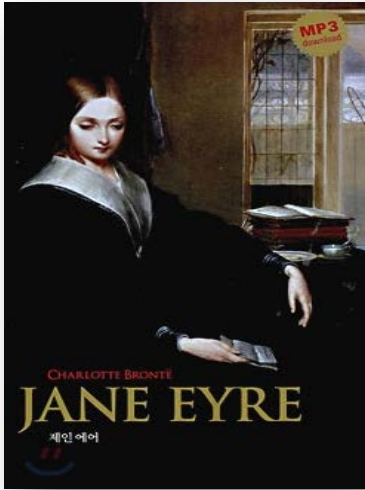
왕조차도 읽을 수 없던 책. 왕의 기록을 담은 실록. 그 방대한 양을 한 권으로 축약하여 국민들에게 쉽게 역사를 접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왕의 업적과 사건들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학생들도 읽기 좋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건들을 소개함으로써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해준다.

- 이*균

03 봄여름가을겨울에 읽어보세요

계절별로 보는 맞춤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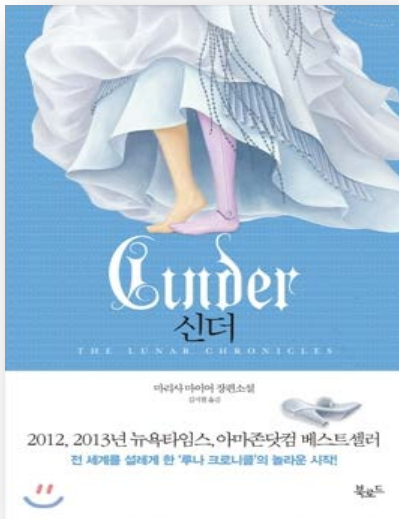
나는 이 책이 좋다. 왜냐하면 제인 에어는 강한 여
자이고,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기 때문이다. 난 이
책을 읽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외면이 아닌 내면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삶은 부와 명
예, 또 잘생긴 외모를 갖추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비록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행복한, 그런 별 같은 사랑이다. 친
구들도 꼭 읽어보고 그 뭉클한 감동을 느꼈으면 좋
겠다.

- 김*림



로봇을 통해 인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흐르는 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봇을 통해 인간 소외가 아닌 인간 사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작가의 글 솜씨에
놀라움이.. 각 등장 인물들의 각기 다른 고민들.
그 고민들을 바라보는 로봇의 시각.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이런 글들이 나올 수 없겠지요.
로봇이 가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 결국은 TV를
통해 봤던 프로그램을 기억해 내고 세제를
녹이는 한 스푼의 시간. 정말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 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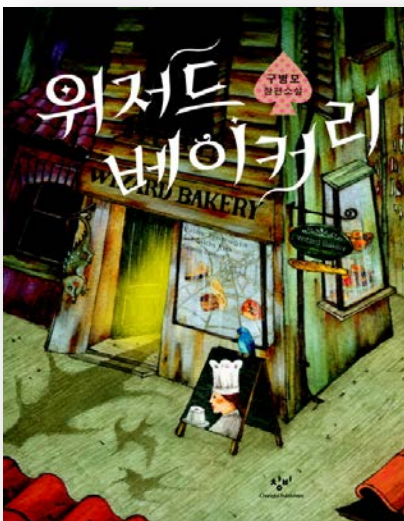


신더는 신데렐라 의 내용과 SF판타지 내용을 합친 이야기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신데렐라의 모습인 착하고 가녀리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 믿음직하고 멋있고 유능하고 걸크러쉬 한 그런 모습이다. 이 내용을 잠깐 요약 하자면 신더는 사이보그이다. 그리고 신데렐라의 내용과 비슷하게 자신을 입양한 집의 못된 부인과 여동생이 둘이 있다.그리고, 이 책에선 정비공 역할을 하던 신더가 루나란 별의 사라진 공주였다는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신더는 스칼렛 크레스 윈터1 윈터2 로 이어진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 이 책을 한번쯤은 읽어 봤으면 한다.

- 이*정

| 위저드 베이커리

구병모



나는 원래 책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심함은 바위도 들어올리나 보다. 책장에 손이 갔다.이때 첫 책을 잘 읽어야 흥미가 붙을 것 같아 심사 숙고했다. 집어 든 것은 위저드 베이커리.선택의 이유엔 제목이 한몫 했다. 내가 베이킹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빠져들었다. 마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다 읽고 나서도 한참 멍하니 있었다. N의 경우와 Y의 경우.딱히 꼬집어 말하긴 힘든 굴레.많은 생각을 이끌어 냈고 다시 손이 가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주위에도 소개했다. 모두 애호가가 되었다. 언젠든 다시 꺼내고 싶은 아껴두고 싶은 소설이다.

- 성*현



이 책은 만사가 귀찮은 한 고등학생이 누나의 부탁으로 들어간 고전부에 얹힌 과거와 같은 고전 부 부원의 과거에 대해 단서를 찾아 추리하는 추리소설이다.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읽어주면 아주 좋아할 것 같다. 이 책은 애내메이션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추천한다. 이 작가의 소설을 아주 좋아하는데, 특히 이 책을 난 좋아한다. 만사 귀찮은 잿빛 고교생활이 장밋빛으로 변하는 과정들... 그리고 주인공의 마인드가 나와 비슷하기도 하여 더욱 인상 깊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스토리도 캐릭터 설정도 최고!!!

- 김*진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이 책은 장편 추리소설이지만 마치 새로운 미지의 세상에서 장시간 동안 모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쓰야, 쇼타, 고헤이인데 나미야 잡화점에 들른 도둑으로 인해 이곳에 오게 된 후 셋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 최*선

| 키다리 아저씨

진 웹스터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키다리 아저씨께 편지를 쓸 때 생각, 상황,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 등을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듯하다. 오직 편지만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또 반전까지 다른 소설책과는 조금 더 다른 형태라서 새로운 느낌과 신선한 감명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읽을 때는 편지만 있어 어렵고 답답한 느낌이 있지만 뒤로 갈수록 로맨틱한 느낌에 감동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이*채

| 너의 안부를 묻는 밤

지민석, 유귀선



참 예쁘게 편집된 책이다. 참 읽기 편한 새로운 개념의 시 같은 에세이 집이다. 우리들이 고민하고 우리들이 공감하는 사랑이야기를 멋진 일러스트 작가의 담백한 메시지와 함께 만나게 된다. 특히 고졸 작가인 지민석은 스물 두 살 청년이다. 그 흔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전업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개성 넘치는 청년 작가를 만나게 된다. 무엇보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일기처럼 때론 직설적인 어투로 때론 은유적인 어투로 때론 철학적인 고민을 담아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책을 다 읽게 되면 작가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신기한 느낌이 들게 된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만나보기를.....

- 김*제

| 오늘따라 시시한 그대에게

피에이지



사랑이 부족한 요즘 학생들에게 감수성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시집입니다. 시 원문과 함께 내용과 어울리는 감성적인 사진도 함께 있어 시의 분위기에 흠뻑 빠질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고 시집을 들고 있는 순간만큼은 시의 세계에 초대받은 것 같아 힐링이 됩니다.

- 허*영

| 그래도 괜찮은 하루

구작가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책은 '그래도 괜찮은 하루'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구작가(구경선)씨는 어려서 열병을 앓아 청력을 잃었고 망막색소 변색증이라는 병까지 얻어 시력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구작가는 베니라는 캐릭터와 함께 버킷리스트를 정하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꿈을 꿈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책의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실화이기에 더욱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힐링이 되는 듯 합니다. 감동적인 실화 때문일까요? 여러분도 어서 이 책을 읽고 힐링과 감동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 윤*림

|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치카와 다쿠지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기 위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내용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책의 명대사 인 것 같습니다. 1년 뒤 비의 계절이 오면 돌아온다는 약속을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그리고 1년 뒤 비의 계절에 다시 돌아온 아내와 다시 만나게 된다. 이 부분이 이 책의 중심 부분이고, 제가 추천하는 이유 입니다. 이 책은 연애훈련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합니다. 사랑에 대한 많은 명대사와 교훈 등 좋은 내용을 많이 알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 김*빈

| 해리포터 시리즈

J.K. Rolling



해리포터라는 책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판타지 소설이다. 해리라는 주인공의 성장소설로 고아였던 해리는 어느 날 마법사 이야기를 듣고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와서 나쁜 적과 싸워 마법세계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아주아주 재미있고 교훈도 많은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형

| 에메랄드 아틀라스

존 스티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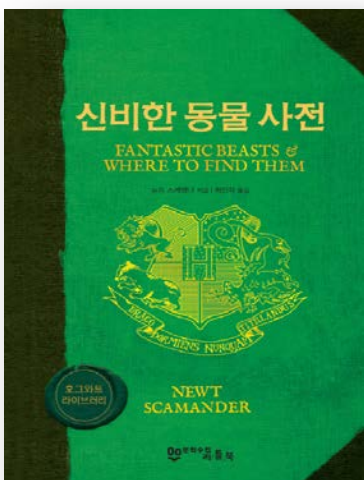


내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스토리가 정말 탄탄하다 읽다 보면 작가의 빅피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고 눈물도 난다. 물론 기쁨에 젖은 행복한 미소도 펼쳐지게 된다. 두 번째 이 책은 판타지 중에 판타지이다. 만일 당신이 반지의 제왕, 호빗 등과 같은 장르의 책을 좋아한다면 이 책은 꼭 읽어야 한다. 모든 판타지의 요소란 요소는 다 넣어놨다. 그야말로 판타지 중에 판타지인 셈이다. 판타지 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안 읽는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셈이다. 세 번째 판타지 이외에도 당신을 감동시킬 러브스토리가 있다. 총 3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7번방의 선물을 버금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로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그만큼 재미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다면 3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놀라운 마법을 겪게 될 것이다.

- 장*설

| 신비한 동물 사전

J.K. Rol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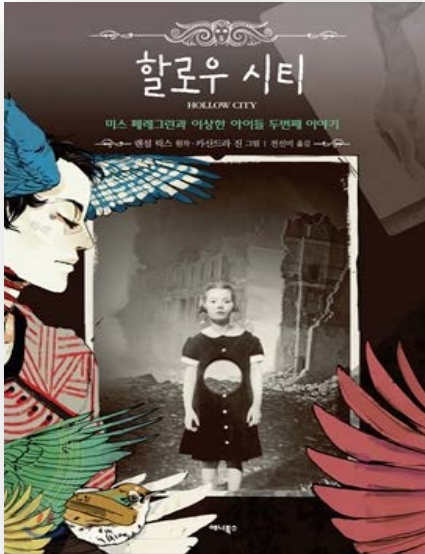


나는 해리포터를 정말 좋아했는데, 이것도 마법과 신비한 동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이 책은 정말 신비의 동물이 등장하면서 그 동물이 탈출해 버린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과 가방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가방을 열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동물을 찾아나서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동물을 잡아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몰입이 잘 되고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제일 마지막 그리폰이 가장 귀엽고 마음에 들었다. 정말 재미있고 인상 깊었던 책 중 하나이다. 친구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될 것이다.

- 천*은

| 할로우 시티

랜섬 릭스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설책을 보면 되고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만화로 된 책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이상한 아이들의 모험과 할로우와 악당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행동이 잘 묘사되어 있다. 또한 인물관계 중 싹트는 사랑을 보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페레그린이 힘을 잃어버려서 아이들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도 흥미진진하다. 게다가 인물의 복잡한 심리묘사 또한 읽는 재미를 준다.

- 김*성

| 사자와 마녀와 옷장

C.S. 루이스



이 책은 영화로도 나온 책인데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이 책이 무척 재미있어서 추천해.

이 책은 보통사람들이라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내용이야. 이 책에 있는 반전 덕분에 나는 상상의 폭도 넓어졌어. 그래서 너도 이 책을 통해서 얻는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 임*은

04 가족, 친구, 우리들의 이야기

청소년기, 가족, 친구 그리고 나를 위한 책



| 길 위의 책

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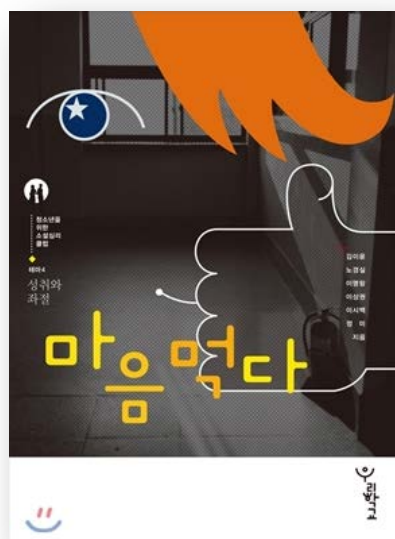


지금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친구와 갈등상황을 겪고 있거나 선생님과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다. 어떻게 주인공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지 알게 되면서 학교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려주고 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아서 지금 청소년기에 친구나 선생님과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왜 그런 갈등이 생기는지 또 생겨서는 안되는 상황들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이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 이*현

| 마음 먹다

김이윤 외 5명



이 책에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겪는 실패와 그 속 느끼는 절망감, 슬픔이 진솔하게 쓰여져 있다. 흔히 느끼는 진로에 대한 고민,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시키면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해나가는 모습을 통해 독자인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성찰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추천한다.

- 백*영



스프링벅이 자기 자신의 의지 없이 무리 지어 다니다가 먹이를 쫓아 아무 생각없이 달리다가 절벽이라는걸 깨닫고 멈추려고 했지만 다른 스프링벅들도 아무 생각없이 뛰어가다가 결국 스프링벅 무리가 다 절벽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처럼 현재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또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지도 못 한 채 그저 끌려 다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과 달리, 주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가는 청소년에대한 내용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주변분위기에 휩쓸려 아무 생각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내용도 어렵지않아서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 차*경

| 풀꽃도 꽃이다



풀꽃도 꽃이라는 책은 우리 현대 사회의 학생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같은 청소년들에게 공감이 되는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이 좁은 시골에서 내가 겪고 얻은 것들은 작은 것이라는데 알게 되었다 큰 도시에서는 공부라는 짐을 등에 업고 부모님의 말에 순응하면서 산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책을 우리 청소년들이 읽어서 공감했으면 좋겠고 수많은 학생들의 부모님이 읽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야겠다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 이*현

| 직업 옆에 직업 옆에 직업 파트리시아 올



이 책을 보면 많은 직업을 알 수 있고, 미래에도 좋다. 직업에 대해 다 나와 있어서 친구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꿈이 없는 친구에게도 좋고, 직업에 대해 모르는 아이들도 이 책을 읽는다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직업별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이 책이 읽기 귀찮아도 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나도 읽어봤는데 어른이 되면 직업을 뭐할까 결정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친구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그런데 친구에게 추천해 주었더니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읽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설득을 해봤지만 친구가 거절했다. 그러나 나는 꿈을 찾지 못한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다.

- 박*호

| 심대로 사는거 진짜 힘들거든요? 강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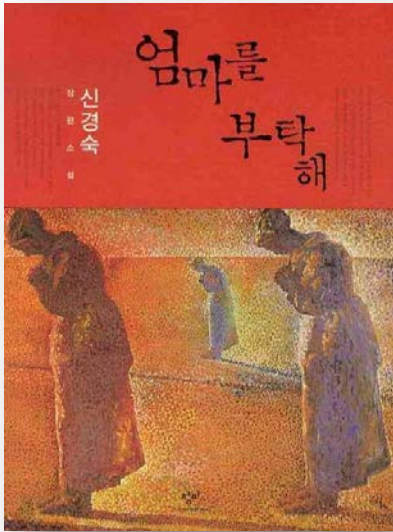


이 책에서는 자아와 외모 관련된 문제, 공부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학교생활이나 이성친구에 대한 문제 등 10대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15살씩이나 되어서 중2병에 걸렸는지 만사가 다 귀찮고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다 짜증이 나서 그 모든 스트레스가 마음의 병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스트레스와 고민거리를 털어낼 친구들조차 이표 경험을 겪고 있으니 부모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싸움까지 번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니 친구관계에서 친구의 심리와 나의 심리가 어떻게 다른지, 부모님은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아무리 못생겼다고 해도 나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차츰 짜증도 줄고 먹던 약도 이제 안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의 외모 때문에 혹은 친구관계나 이성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인 학생, 10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남*미

|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저도 다른 친구의 추천으로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하였으나 점점 이야기가 진행 될수록 몰입이 되었습니다. 항상 엄마에게 무심하게 했던 자녀들이 엄마의 실종으로 인해 그 가족이 붕괴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사라지고 나서야 엄마의 소중함과 지금까지 왜 더 신경 쓰고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 느낀 감정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보고 나서 엄마한테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 더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다른 친구들도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고 효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박*희

| 엄마 사용법

김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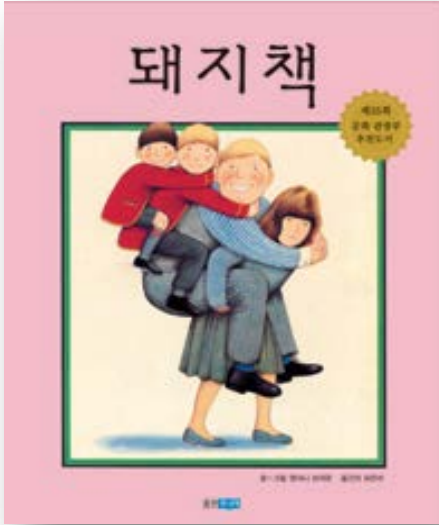


친구들아 내가 소개할 책은 엄마 사용법이야. 이 책은 생명을 소중히 하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 이 책에서는 엄마를 갖고 싶어하는 주인공에게 생명장난감인 '로봇 엄마'가 생겨. 로봇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고 산책도 같이 하면서 로봇 엄마에게 마음이 생기게 돼. 하지만 마음이 생긴 로봇은 불량품이 돼버려서 파란 사냥꾼들이 잡으려고 쫓아와. 주인공은 생명장난감인 고릴라와 힘을 합쳐 로봇 엄마를 다른 곳으로 피신 시켜. 헤어질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 나도 이 부분에서는 눈물이 조금 나올 뻔 했어. 지금도 마트에는 쉽게 구입 할 수 있는 햄스터, 열대어, 거북이, 소라게 등의 생명 장난감을 쉽게 사서 싫증 나면 쉽게 버려버려. 나는 이것은 정말 나쁘다고 봐. 모든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그러면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책을 한 번 읽어봐. 정말 감동 받을 거야.

- 김*진

|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가족구성원의 소중함, 필요성, 가족이 하는 일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재미있게 돼지로 표현하고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만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동물과 사람의 각자의 시선에서 보면 재미있다. 우리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책이라서 친구들과 선생님께 추천하고 싶다.

- 김*수

| 터널

앤서니 브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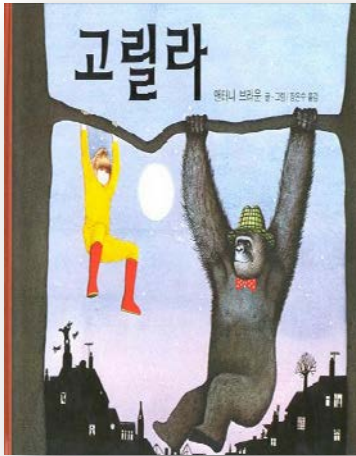
동생과 또는 오빠 언니와 싸웠을 때 이 책을 꼭 한 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이라는 책도 오빠와 동생이 싸웠는데 오빠가 신기한 터널로 들어가 돌이 되어 버리자 동생은 용기를 가지고 오빠를 돌에서 깨어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생이 오빠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빠가 거기에 있는 것조차도 모를 텐데 동생은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용기를 가지고 오빠를 돌에서 깨어나게 하였습니다.

이내용처럼 저는 형제 자매간에 싸웠을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송*원

| 고릴라

앤서니 브라운



엄마 아빠가 바빠서 늘 시무룩하고 실망해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은 바쁜 아빠가 늘 하고싶은 것을 함께 해주지 못해 서운하기만한 친구의 이야기인데 아빠에게 동물원에 가서 고릴라를 함께 보고 싶은데 고릴라 인형을 사주신 아빠에게 조금 실망해서 꿈속에서 아빠에게 선물 받은 고릴라 인형과 여행을 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 생일날 꿈속에서 고릴라 인형과 여행한 곳을 실제로 아빠와 함께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바쁘지만 우리들을 위해 늘 생각하고 함께 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 강*서

| 풀빵엄마

노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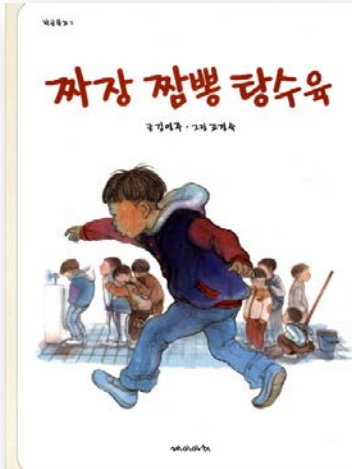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매우 재미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엄마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공부나 하라고 하시던 말이 우리에게만 잔소리로 들려 가끔씩 엄마가 미울 때도 있다.하지만 이 책은 엄마의 애정과 사랑,등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책이고 엄마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 문*

| 짜장 짬뽕 탕수육

김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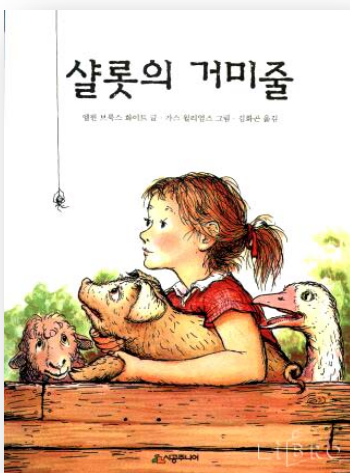


이 책은 종민이가 시골에서 도시학교로 전학을 와서 친구들과 사귀는 이야기이다. 종민이는 거지라고 놀림을 받았지만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짜장, 짬뽕, 탕수육이라는 재미있는 말로 친구들과 친하게 되었다. 내가 만약 종민이라면 새로운 학교에서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친구들이 놀리면 화를 내고 울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리처럼 어려운 친구에게 건 내는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우리 반 친구 신흥초 3학년3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오면 왕따 하지 않고 친구가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사이 좋게 지내면 전학 온 친구가 잘 적응하고 학교생활이 재미 있을 것 같아서이다.

- 김*서

| 샬롯의 거미줄

E.B. 화이트



<샬롯의 거미줄>이란 책은 샬롯이라는 거미와 월버라는 돼지의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이다. 나는 이 책의 우정이란 내용이 들어가있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자신을 희생해서 친구를 도와주는 샬롯이라는 거미가 정말 좋았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나는 평생 좋아해줄 자신이 있다. 난 이런 '우정'이라는 것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한다.

- 이*은



이 책을 추천해요. 왜냐 하면 이 책은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두 명의 친구가 등장해요. 두 친구는 20년 후에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예전에 만났던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20년이란 시간이 흘러 약속 장소에 한 친구는 먼저 와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약속한 친구가 나타나서 함께 말을 하면서 걸어 가는데 그 친구는 자신이 알던 20년 전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사실은 그 친구가 경찰이 되고, 다른 친구는 범죄자가 되어 자신은 친구를 잡지 못하니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을 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나도 경찰과 같은 친구였다면 어떻게 죄를 저지른 친구를 처리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라 추천해요.

- 이*현

| 우리들의 에그타르트

김혜정



아이들 네 명이 에그타르트가 너무 맛있어서 매일 에그에그라는 곳에 가고, 너무 비싸서 갈 수 없었습니다. 마카오가 에그타르트 원조 국가라고 해서 아이들은 마카오에 가기로 결심하고 용돈을 꾸준히 모읍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에그타르트의 원조 국가가 포르투갈인 걸 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은 마지막에 포르투갈에 못 간다고 했던 친구가 전학을 가면서 자신이 외로울 때 마다 하나씩 샀던 인형을 친구들에게 선물하며 끝납니다. 그리고 전학 가며 헤어졌지만 종종 만나서 용돈을 모아 꼭 마카오에 가자고 약속하는 내용으로 친구와의 우정이 잘 드러난 책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합니다.

- 최*민

| 베니스의 상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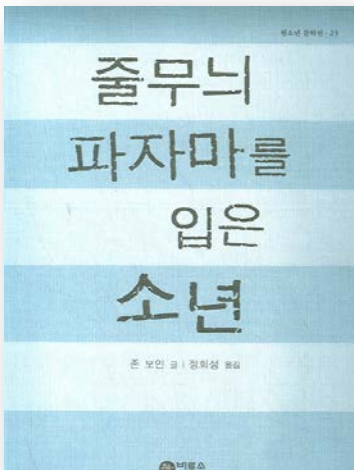


베니스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중 유명한 안토니오와 샤일록 두 명이 있었다. 앤토니오는 작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사람들이 좋아했으며 샤일록은 고리 대금업자여서 사람들이 싫어했다. 이야기에서 사건이 있지만 권선징악으로 끝나서 읽는 친구들이 흥미롭고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다. 이 책은 친구와의 우정을 돈독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어린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 김*겸

|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존 보인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비슈비츠 수용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또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친구들과도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친구와 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 하게 되고 또 친구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되새겨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 문*양

| 서형일의 공부도감

서형일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공부하다가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안 오르고, 청소년기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며 시험기간의 Tip이나 치고난 후의 노하우가 그대로 적혀 있는 책이고, 아무리 공부를 몰라도 이 책을 보면 누구나 이것에 대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장점은 하나하나 꼼꼼히 적혀 있어, 내가 궁금한 것이나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를 때 찾아서 보면 효율적이다. 평소 공부에 관심이 많아 웬만한 공부법은 다 읽어보았지만 청소년기 때 이만큼 좋은 책은 없었다. 또한 이 책은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와 공부 마인드를 스스로 키우게 해 주는 또 하나의 멘토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 주어 내가 몰랐던 지식을 한 단계 더 깨우치게 해준 책이라고 생각한다. 워낙 두꺼운 책이지만 공부를 더 알고 싶거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공부고민을 여기서 찾으며 성장하길 바란다. 파이팅!!

- 김*아

| 미쳐야 공부다

강성태



일명 공부의 신이라 불리는 강성태가 직접 공부에 관한 책을 써서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그 책을 읽으면 강성태라는 사람이 어느 사건을 계기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가 사용한 공부법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공부와 나의 거리를 좁혀주고 공신이란 사람도 '나와 다를 것이 없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같은 공부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그의 공부 방법을 따라 하였고 실제로 성적이 오르고 공부 시간이 느는 기적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지만 내 또래 중엔 이 책을 아는 사람이 몇 없다. 친구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 주고 싶다.

- 박*성

| 어린이를 위한 감정 조절의 기술

방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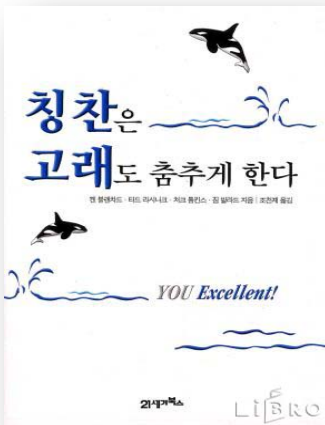


친구들아 내가 추천하는 이 책을 꼭 읽어봐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는 화를 내는 건 좋은데 건강한 방법으로 화를 내라고 알려 주셨어 그때 내가 읽은 책이 소피가 화나면 이라는 책이었어 이번에 내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감정조절 기술이라는 책을 사주셨어.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도 많지만 어떻게 화를 내는 것이 정신에 좋은지 짜증날 때도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깐 너희들이 읽어보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찾았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도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 어른들 얘기도 듣지만 내가 읽었던 책 내용도 떠올려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거든 많은 친구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

- 김*우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



우리가 평소 친구에게 하는 아주 사소한 말,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뒤흔들어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왕이면 좋은 말, 바른 말, 즐겁게 하는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up시키며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책을 통해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한 마디 한 마디를 통하여 상대방과 내가 모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앞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칭찬으로 더 밝은 미래의 모습을 꿈꾸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추천해보고자 합니다.

- 장*동

| 아홉살 마음사전

박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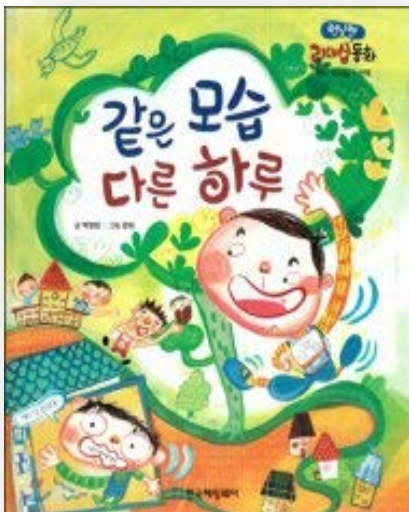


친구야, '아홉 살 마음사전'이라는 책을 읽어볼래? 내가 너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는 이유는 네가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네가 나의 감정을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에는 네가 아직 모르는 감정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야. 나도 이걸 보았을 때 내가 몰랐었던 새로운 감정들이 나와 있었어. 정말이지 난 네가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 꼭 읽어봐~~

- 노*서

| 같은 모습 다른 하루

박영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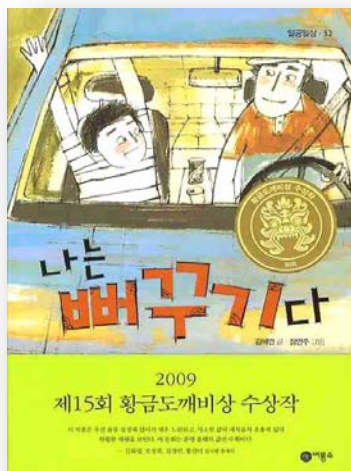
나는 훈이와 현이처럼 쌍둥이입니다. 난 이란성이지만 훈이랑 현이는 일란성이지. 그런데 훈이랑 현이처럼 우리집도 나랑 언니는 행동이 완전히 틀려요. 쌍둥이라서 서로에게 친구도 되고 경쟁자도 되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너무 잘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해라는 우리 엄마 말씀처럼 한다면 훈이도 현이도 사랑받는 멋진 신사들이 될 거예요. 나도 멋진 숙녀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훈이랑 현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일거예요. 나랑 언니가 둘도 없는 친구인 것 처럼요..

저는 언니를 사랑해요 그리고 미울 때도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생활할거예요. 이세상에 모든 쌍둥이들 파이팅!

- 정*안

| 나는 배꾸기다

김혜연



외삼촌 집에 얹혀사는 동재, 가족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혼자 사는 기러기 아저씨와의 이야기. 여섯 살 때 외삼촌 집에 맡겨져 버린 동재. 외삼촌 집에서 알게 모르게 눈치밥을 먹어야 하는 동재가 몸도 마음도 커가는 과정이 너무 괴롭지만은 않게 그려져 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면 동재의 상황은 멀리 떠나버린 어머니 끼어 들 자리 없는 외삼촌네 가족. 늘 울 일만 가득하고, 실의에 빠져있을 것 같지만 '나름' 잘 지내는 동재에게 '동정'어린 시선보다는 기특하고 대견한 마음과 열은 미소도 띄어진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게 있고, 슬픔이라는 게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동재가 비로소 건이 형을 마음으로 안게 되고 한걸음 성장한 것처럼 책을 읽는 이 모두 조금은 성장케 하는 책!

- 노*균

| 유진과 유진

이금이



제목에 끌려서 읽게 된 책이지만 한 번 읽을 때 마다, 읽고 나서의 느낌이 달랐다. 일 년 지날 때 마다 이 책을 읽어봄으로서 내가 얼마나 성장 했는지 느끼게 해준 책이다. 처음 읽어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즈음인데 그때에는 이해도 잘 되지 않았고 '나였다면'이라는 생각보다 그럴 수 밖에 없었나? 하는 마음이 더 컸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 옳은 것이 무엇이고 왜 옳은 것 인지까지 판단할 수 있음으로 내가 나아가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금 해주었다. 이 책에서는 옛날의 일을 이겨내는 방법에 따라 훈장으로 남길지, 누더기로 남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의 나는 어느덧 부모님의 입장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비록 청소년 문학이지만, 청소년 문학에 그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심표로 중간 지점이 되어주는 책인 것 같다. 당장 이 책을 읽어보고 일 년 뒤에 한 번 더 읽어보라 권하고 싶다.

-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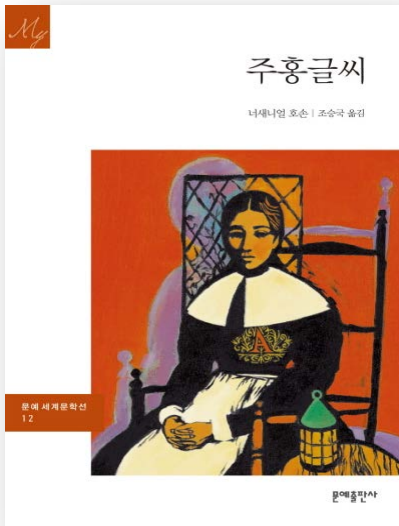
05 책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영화와 함께 보는 책 그리고 웃음유발 책!



| 주홍글씨

나다니엘 호손



헤스터 프린, 딘즈데일 목사 사이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내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었다. 친구들도 이 책을 보면 나처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친구들도 헤스터 프린에게서 일어나는 주홍글씨 이 이야기를 꼭 읽었으면 좋겠다.

- 현*우

|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영화를 먼저 보고 국어선생님의 권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은근슬쩍 왕따 시키는 내용으로 천지라는 아이가 자살한 후에 내용을 과거와 현재를 번갈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읽을 때 마다 울었다. 이미 천지가 죽어버린 후에 일이라서 그런지 화연이는 평생 용서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자살이 좋은 방법도 아니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고 싶고 친구 사이가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에서도 방관자인 미라가 나온다. 가해자인 화연이도 물론 나쁘지만 방관자인 미라도 마찬가지로 잘못 된 것 같다. 방관자인 한 명이 먼저 손을 내밀어준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인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친구의 소중함과 여러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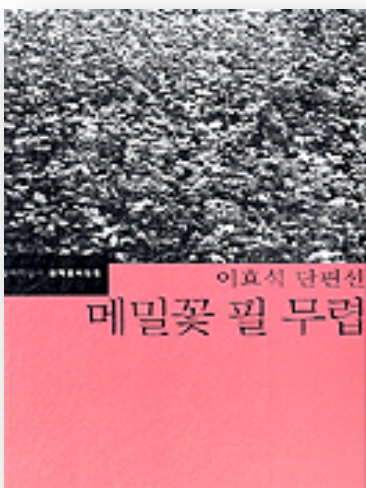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시나마 휴식을 구하고 싶으면 이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이 스트레스를 뱅~날려버리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마틸다가 초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조절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복수하는 스토리로, 지금 청소년기인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시험을 상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과 비슷해 공감이 잘되어서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성*재

|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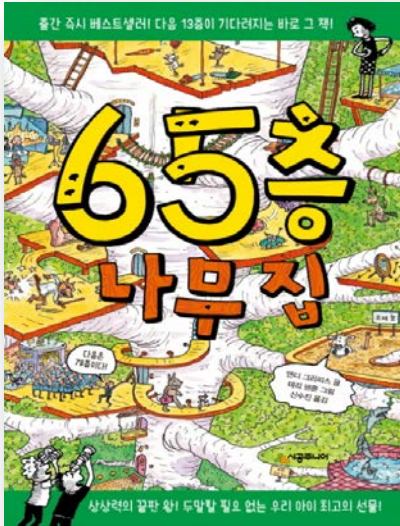


제가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소설에 쓰여진 표현들이 독창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와 '산허리는 온통 메밀 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등과 같은 다른 책과 다른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허리는 온통 메밀 밭 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라는 표현은 진짜 메밀밭에 와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아름다운 표현을 보고 싶으신 분들과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 최*희

| 65층 나무집 시리즈

앤디 그리피스



내가 처음 '13층 나무집'을 봤을 때는 책이 두꺼워서 읽기가 주저되었다. 그런데, 막상 읽다보니 금세 책장이 넘겨지고, 다음 시리즈가 기대되는 책이 되었다. 이 책은 13층 나무집에서 시작하여 13층씩 늘어나면서 지금은 78층 나무집까지 나와 있다. 난 그 중 65층 나무집이 제일 재미있었다. 특히, 주인공 테디가 개미 괴물이 되는데 앤디가 방망이로 테디를 구해준 장면이 제일 재미있어서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었다. 또 생각해 보면 63빌딩보다 더 높은 65층이 한 나무 안에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빨리 다음편인 91층이 기다려진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이 책을 잡는 순간 놓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만의 아지트를 꿈꾸는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김*지

| 고양이의 가장 기묘한 돈벌이

보린



저는 이 책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고양이와 여우가 의인화되어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등장인물로 느껴집니다. 때론 배꼽잡고 웃게 만들고 때론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 못 참게 만듭니다. 가끔은 이렇게 재미있고 뒷 이야기가 기다려지는 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 홍*준

06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환경을 주제로 한 책



|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이 책은 나무를 심은 한 늙은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황무지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고 많은 생물들과 인간이 공존하며 희망과 행복이 되살아나게 되는 내용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어려움에 처한 여러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희망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며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 가슴이 아프다.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읽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 김*희

| 레모네이드를 파는 천사

송범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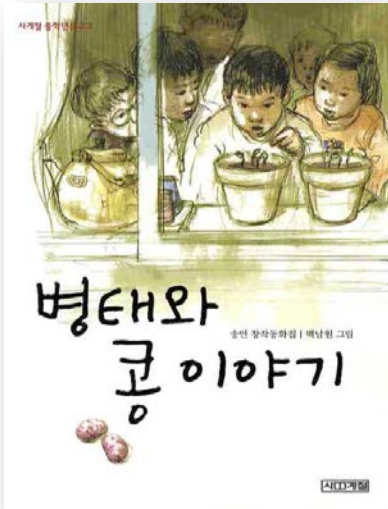


알렉스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 수술도 하고, 항암이라는 머리가 다 빠지는 약물치료도 받았지만 겁먹거나 슬퍼하지 않고 자기랑 같은 병에 걸린 친구들이 치료 받을 수 있게 레모네이드를 팔아 돈을 모으다 병한테 져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알렉스는 하늘에 갔지만 사람들은 계속 모금을 해서 암 치료와 연구를 할 수 있었대요. 아직 어렸지만 너무 착한 알렉스의 예쁜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멋지고 착한 행동을 해야 되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꼭 큰 복이 올 거랍니다. 알렉스야..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지.. 넌 참 예쁘고 착한 아이야.. 사랑해

- 정*선

| 병태와 콩 이야기

송언



이 책에서는 자연실험을 하는데 병태가 물을 안 준 화분에 물을 주어서 자연실험을 망쳤지만 콩을 살려주는 것이 감동적입니다. 자연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망친 것은 잘못이지만 콩을 불쌍히 여기고 죄 없는 콩을 죽지 않게 물을 준 것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서 선생님도 병태 덕분에 큰 사랑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저도 병태처럼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합니다.

- 최*훈

| 아빠와 걷는 생태길

남상욱, 송소진, 장치은



친구야! 아빠와 함께 걷는 생태길 읽어볼래? 이 책에서는 서울 대표 생태길 15곳에 있는 곳을 알 수 있어. 또한 식물에 관한 것도 알 수 있지. 그리고 교통도 나와 있어. 이 책은 자세히 써져있고 생태길이 15곳이 어서 많이 없다고?? 아니야 여기에선 나무,식물,꽃,길,등이 많이 있어 어때? 재미있겠지? 안 읽었다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도서관에 가서 아빠와 함께 걷는 생태길을 읽어봐

- 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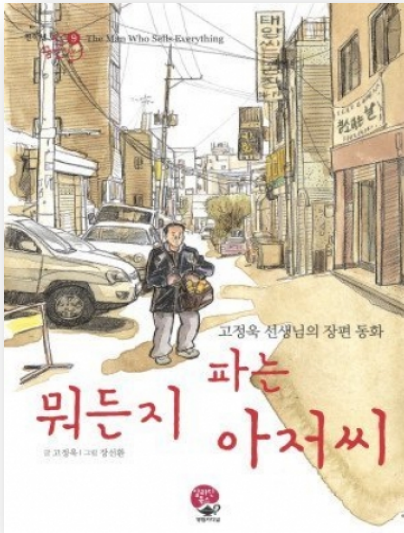
07 조금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

편견과 차별에 대한 책



| 뭐든지 파는 아저씨

고정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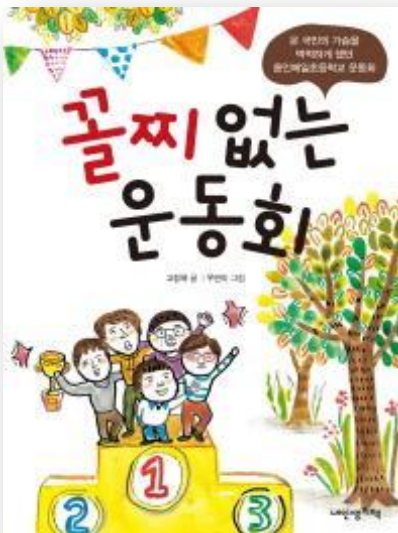


장애인은 뭐든지 할 수는 없지만 자신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힘든 장애인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장애인도 우리 비장애인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이 책에서 알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버리는 장애인을 놀리는 것을 아버지에게 들켜서 벌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은 자신이 원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일까요? 장애인은 모든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부위에만 장애가 있고 다른 것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책은 장애인에 대하여 알게 해 주고 장애인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오*수

| 꿀지 없는 운동회

고정욱



우리들은 모두가 그렇지 않아도 조금씩은 장애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들은 장애는 우리와 다를뿐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애는 나쁜 것이고 유별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좋겠습니다.

- 이*연

08 기억해야 할 아픈 기억들

위안부, 6·25 잊을 수 없는 아픈 역사



| 꽃반지

탁영호



일제시대에 우리의 할머니들께서 겪은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한 책이었다. 가끔 평화의 소녀상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는 의미로 세워진 것도 알게 되었다. 하루 빨리 일본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 나*현

| 몽실언니

권정생



권정생님의 <몽실언니>는 6.25 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하여 쓴 책으로, 가난과 온갖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았던 소녀의 성장기를 그린 감동적인 소설입니다. '가족으로 인해 불구가 되지만 가족을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 아픔의 시대를 강인한 의지로 곳곳하게 이겨낸 몽실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추천합니다.

- 박*경

| 조지 할아버지의 6.25

이규희



저는 '조지할아버지의 6.25'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6.25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조지 할아버지가 영후 학교에 가서 6.25 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6.25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6.25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권*진

LIST

[기타]

20년 후
Who? 근초고왕
Why 드론

[ㄱ]

갈릴레오 아저씨네 비밀천
문대
강아지똥
같은 모습 다른 하루
고릴라
고양이 가장의 기묘한 돈
벌이
그래도 괜찮은 하루
길 위의 책
꿀지 없는 운동회
꽃반지

[ㄴ]

나는 빠꾸기다
나무를 심은 사람
나무집 시리즈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너의 안부를 묻는 밤
눈에 즐거운 물리

[ㄷ]

돼지책

[ㄹ]

레모네이드를 파는 천사

[ㄴ]

마음먹다 테마4 - 성취와 좌절
마틸다
메밀꽃 필 무렵
몽실언니
뭐든지 파는 아저씨
미쳐야 공부다

[ㄴ]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포옹
베니스의 상인
병태와 콩 이야기
빙과

[ㄴ]

사자와 마녀와 옷장
샬롯의 거미줄
서형일의 공부공감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 이야기
기
수학특성화 중학교
스프링백
시원의 책 시리즈
신더
신비한 동물 사전
십 대로 사는 거 진~짜 힘들거
든요?

[ㅇ]

아빠와 함께 걷는 생태길
아홉 살 마음사전
어린이 과학 형사대 CSI
어린이를 위한 감정 조절 기술
엄마 사용법
엄마를 부탁해
여름이 반짝
역사에게 길을 묻다
오늘따라 시시한 그대에게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우리들의 에그타르트
우아한 거짓말
위저드 베이커리
유진과 유진

[ㅈ]

제인 에어
조선왕조실록
조지 할아버지의 6.25
주홍글씨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직업 옆에 직업 옆에 직업
짜장 짬뽕 탕수육

[ㅊ]

책 먹는 여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ㅋ]

키다리 아저씨

[ㅌ]

터널

[ㅍ]

풀꽃도 꽃이다
풀빵엄마

[ㅎ]

하리하라, 미드에서 과학을
보다
한 스푼의 시간
할로우 시티
항아리속 이야기
해리포터